

1990.12.20

영화배우·탤런트·여대생 낀 일본인 상대 윤락조직 적발

포주 5명 구속

서울지검 북부지청 김민재 검사는 19일 영화배우 탤런트 여대생과 윤락녀를 서울시내 고급호텔 등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시킨 뒤 이들이 받은 화대중 9억2천여만원을 소 개비조로 가로챈 손수용(43·여·용산구 서빙고동 4-122)씨 등 5

명을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김숙경(32·여)씨를 수배했다.

검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지난 7월초부터 용산구 이태원1동에 단독주택을 세내 전화 3대를 설치하고 윤락녀 10여명을 합숙시키면서 호텔 렌터카 운전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윤락녀 이아무개(27·여)씨를 롯데호텔로 보내 일

본인 관광객과 윤락행위를 시키고 화대 9억2천여만원을 가로챈다는 것이다. 검찰수사 결과 구속된 손씨 등은 영화배우 이아무개(26·여) 모델 조아무개(24·여) 여대생 박아무개(20·경남 7대 2)씨 등 탤런트와 대학생 20여명의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이들을 롯데호텔 등으로 보내 윤락행위를 시켜 온 것으로 밝혀졌다.